

지역 소식통

수확된 사랑더하기
7년 연속 기부선행

(사)수확된 사랑더하기가 '2023 사랑더하기 산타클로스' 선물을 후원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지난 22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겨울 이불 100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능기부로 전국을 돌며 거리 공연과 버스킹을 통한 자선 모금 활동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는 수확된 사랑더하기는 2017년부터 김제지평선축제장에서 무료 공연을 진행해 왔으며 연말에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을 기부하며 김제시에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고 있다.

올해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에도 벽골제 행사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며 현장 공연을 했으며 날씨가 추워진 연말에 김제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수확된 사랑더하기의 따뜻한 손길은 7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주민공동체와
동지 팔죽 나눔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 '찾아가는 농촌혁신복지관' 사업 일환으로 동짓날 금산면 주민들에게 동지팔죽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을행복밥상'은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단장 신은화),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세), 금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승곤)가 협력하여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의 영양배려계층(홀몸노인, 장애인가구, 조손세대) 400세대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획했으며 주민공동체와 민관이 협력하여 농촌혁신복지관 먹거리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신은화 단장은 "12월 엄동설한의 한파를 녹이는 봉사단, 후원처, 민관의 도움으로 지역사회가 훈훈해지고 온기를 나눌 수 있어 보람 있다"며 "살기 좋은 농촌,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문화역사전망대 준공

우석대 대학본부 23층과 옥상에 복합문화·전망 공간 조성

지난 5월 청사진이 나왔던 완주 문화역사전망대가 준공됐다. 22일 완주군은 군비 7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대학본부 건물로는 최고층을 자랑하는 삼례읍 우석대학교 대학본부 23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옥상에는 전망 공간을 갖춘 문화역사전망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역사적 이미지를 재고시키기 위한 마한역사문화권 사업 일환으로 완주군과 우석대학교가 과감히 추진한 결과물이다.

전망대에서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만경강 유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과 배매산성, 삼례토성 등으로 대표되는 완주 마한유적과 익산 왕궁리유적, 미륵사지로 대표되는 익산 백제유적, 고려 현종이 방문했던 삼례역참터(현 삼례동부교회), 동학 삼례광장과 봉기추정지(삼례별), 일제강점기 쌀수탈을 위해 만들어진 대간선수로 등 주요 역사 자원을 볼 수 있다.



우석대학교 대학본부 23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옥상에는 전망 공간을 갖춘 문화역사전망대를 조성했다.

아울러 완주와 전주, 익산 도심지역을 둘러볼 수 있고, 서남쪽으로는 정읍의 갈매와 부안 내변산, 새만금 일원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삼례읍은 조선시대 전라, 충청, 경상 같이 모두 모이는 삼남대로의 중심지였다. 특히, 주변의 용(龍)과 봉황(鳳凰)이 관련된 20여 개의 지명과 형세에서 알 수 있듯이 풍수학적으로 봉황이 날고(비봉) 용이 나아가는(용진) '용봉상승'의 미래 번영의 기운을 담은 대운의 지세를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완주군은 문화역사전망대가 만경강 일원 산천(山川)과 호남평야 주변 도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 군수는 "전망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장시간 공력을 들여야 하는데 완주 문화역사전망대는 우석대학교와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이뤄낸 혁신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우석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망대가 특색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완주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요와 용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난 22일 전북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가 김제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했다.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

김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 전북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가 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병진 대표는 "김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어렵고 힘든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답례품으로 제공받은 90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백구면에 재기부했다.

김 대표는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올해 1월 UAE 대통령 국민방문 시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하기도 하는 등 국가와 지역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분 한분의 마음이 모여주고 있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심사숙고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매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도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농협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부 처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올 한해 54건 수상 실적 기록

중앙부처·전북도·주요 외부기관 평가서 긍정 전 분야 두각

국가산단 유치, 인구증가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완주군이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 올해만 54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2일 완주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전북도, 주요 외부기관 평가서 총 54건의 수상을 했다고 밝혀, 전국 최고의 미래행복도시를 입증했다.

특히, 완주군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복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긍정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우선 중앙부처 평가에서는 2023년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꼽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완주군의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지자체 감염병분야 자체 지역협력 사항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역먹거리 지수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대중교통 시책평가 4회 연속 전국 1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14회 연속 수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을 거머쥐면서 '넉사벽'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북도 평가에서도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대상(도 1위),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최우수, 2023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대상 최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특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경쟁력 지수에서 전국 군 단위 1위 인증을 받은 것은 최고의 이슈였다.

이 평가에서 완주군은 지난해 10위에서 1위로 순위 상승했다.

도시인프라, 산업인프라, 보건복지, 문화교육 등 총체적인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2위 지자체와 큰 폭의 점수 차를 벌여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다. 올해 발표한 행정

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정혁신 평가에서도 전년보다도 12계단 상승한 전국 군 단위 3위에 랭크돼 전북 14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2023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서 평가 최우수 SA등급을 받아 공약의 실천성과 실효성을 검증받았다.

이외에도 2023년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3년 올해의 SNS 3관왕 등 각종 기관과 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종 수상에 따라 올해 완주군이 받은 인센티브는 적게는 2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에 이르러 총 6억 2천만 원이다.

유 군수는 "올 한해 완주군이 지역경제 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민우선', '현장중심', '혁신행정'의 가치 아래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해 한 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덕분이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내년도 농업분야 안내책자 배부

사업별 지침 수록... 2월 2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2024년 농업분야 주요사업 안내책자를 제작해 농업인들의 농정을 돕는다.

완주군은 이달 말까지 '2024 농업분야 주요사업 안내' 책자를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관련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책자 배부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와 사업 관련 부서, 읍·면행정복지센터는 내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 사업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사업 신청자는 완주군 내에 주소지와 농경지를 두고 있으며 사업별 신청 자격에 부합되는 농업인이다.

관심 있는 농업인은 사업별 세부지침을 참고해 2월 2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내책자 제작을 통한 홍보는 농업인들이



사업정보를 접하기에 효과적이다"며, "안내책자를 숙지해 기한 내 사업 신청을 해주길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사업 담당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복국'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